지질학

| [메인 문서](https://docs.google.com/document/u/0/d/1F0OwcWBFX517r8jL3AMEKxwHbz69J6QT-eIlSF7itT8/edit) | | | | | | |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[일반지구과학](https://docs.google.com/document/u/0/d/1p-7jFa2xJbYwS6Sy-prVPe1WrCJjtr-ipBi4uEJsWyo/edit) | | > | 지질학 | | > | 없음 | |

## 개요

예로부터 지질학은 KSA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과목입니다. 일반지구과학에서 배운 지구과학 내용 중 암석, 판, 마그마 등 지구의 고체 물질들에 대해 더 깊이 배우며, 3학점의 자연과목입니다.

## 정보

가르치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교육과정 변동이 큰 과목일 것 같습니다. 특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견학 교육의 기회가 사라져 안타깝습니다.

교재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Lutgens 외의 Essentials of Geology를 기반으로 가르치십니다. 하지만 교과서를 볼 필요는 전혀 없으며, 내용이 일반지구과학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. 짝수학기에만 개설되며, 2020-2학기에 는 암석의 구분, 마그마, 지질구조, 한반도의 형성을 배웠습니다. 이전에는 지질학적 의미를 가진 부산의 명소 몇 곳을 견학했으나 작성자(19-046 박준혁)는 그러지 못했습니다,,

3교시 연강으로 수업했습니다.

## 과제

코로나 시국 이전에는 견학 이후 보고서 형식으로 뭘 봤는지,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도의 간단한 글을 조별로 제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. 2020-2학기에는 학교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암석 구분하기나 엑셀을 통한 암석 구분 등 다양한 과제를 내어주셨습니다. 하지만 전혀 부담되지 않으며 주변인에게 과제가 있다고 하면 질타를 받을 정도의 양입니다.

## 시험

2020-2학기에는 중간고사만 치뤘습니다. 중간고사만 있는 만큼 학기에 부담이 적으며, 하루 이틀정도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.

## 난이도

지질학이 어려웠다고 말하는 선배가 있다면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. 다만 지질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얕게 배우면 정말 쉽지만 조금 깊이 들어간다면 어려울 수 있어 선생님의 교육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.

한반도의 형성이나 지질구조 등은 일반고등학교 지구과학 II 정도의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습니다. 김도형 선생님 외에 다른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더라도 이보다 더 깊이 배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.

## 팁

너무 깊이 사고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. 조금만 깊이 알아가도 어려워지는데, 정작 시험이나 과제에는 그 정도로 깊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을 느끼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지질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재밌고 쉽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.

## 기타

학기 중에 공식적으로 견학 수업을 갈 수 있는 몇 안되는 과목입니다.

과제, 난이도, 시험, 수업 등 모든 부분에서 부담이 타 자연심화과목보다 월등히 적으며, 지구과학 전공자들에게는 4학기에, 다른 학생들에게는 6학기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ㅎㅎ